



11일 오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의 전경. 올해 말까지 13곳의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기업 유치와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 최소화, 정부지원 확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규제에 발목 잡힌 나주 혁신도시 기업유치

산학연 클러스터 필지 세분화 안돼...MOU 체결해도 추첨 분양 행정절차 등 간소화해 외지 중소기업·지역기업 유치 지원해야

나주 빛가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하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겠다는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으나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제 등으로 필지 세분화가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조조해진 기업들은 클러스터 입주 권한을 선점하기 위해 전남도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으나 실제 용지는

당 42만)보다 싼 m²당 35만1000원으로 낮춘데 이어 매머드급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이 임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문외에 그치지 않고 오는 19일 (주)누리텔레콤 등 5개 기업이 5만3000m² 부지 매입과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23개 업체가 MOU 체결을 통해 입주를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3개 블록 46만3190m² 면적의 클러스터 용지 가운데 7개 블록 15만9765m²가 분양을 끝낸 상태다. 반면 나머지 6개 블록 30만3425m²의 경

우 필지 면적이 너무 커 중소기업 및 지역 기업들이 입주에 난색을 표하고 분양률도 정체상태를 빚자 클러스터 용지를 조성한 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이 뒤늦게 필지 '세분화'에 나섰다. 각 필지 면적을 줄여 외지 중소기업은 물론 지역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필지 세분화를 마치는데 3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국전력공사 입주 예정시점인 11월에야 분양공고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클러

스터 입주 희망기업이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에 앞서 부지 매입, 착공 등의 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절차로 인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입주희망 기업 관계자는 "애초에 클러스터 부지를 기업 규모에 맞게 다양하게 분양했거나 아니면 서둘러 필지 세분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올해 내 공공기관 대부분이 입주할 예정인데, 기업들이 너무 뒤처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LH공사 등은 입주 예정필지 세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승인계획을 제출한 상태로, 이후 나주시·전남도 협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거쳐야 한다. 이처럼 클러스터 용지 분양이 늦춰지면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려는 기업들은 이미 분양이 끝난 구역에 대해 투자협약을 맺는 등 일부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중소·지역기업들의 자금력을 감안해 분양가를 낮추고 필지 규모도 줄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절차로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확정

2017년 준공은 불투명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목포) 노선을 둘러싼 갈등이 나주와 무안국제공항을 동시 경유하는 것으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에 50억원의 설계비만 반영할 예정이어서 준공시점인 2017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 설계와 동시에 공사 착공을 위해 1500억원을 요청해준 상태로 기획재정부 심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호남고속철 송정~목포 구간 노선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벌인 결과 나주와 무안공항을 함께 경유하는 것이 비용편의(BC) 분석에서 다른 노선 보다 가장 높게 나왔다. 노선별 비용편의 비율은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가 0.48로 가장 높았고, 송정~나주~목포 0.45, 송정~무안공항~목포 0.42이다. 송정에서 나주를 경유하면 무안공항만을 경유하는 노선 보다 시간이 6분 정도 늘어나지만 건설비는 7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도는 당초 박준영 전 지사 재임시절 무안공항만을 경유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나주를 경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선 논란이 빚어졌다. 이후 이낙연 전남지사는 취임 후 나주와 무안공항을 모두 경유하는 것으로 변경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 타당성 용역과 전남도, 나주시의 입장이 동일해 호남고속철 2단계는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노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남도가 요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며, 이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만 남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하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설계비 50억원만을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로, 전남도가 요청한 15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설계와 동시에 착공해 준공시점인 2017년을 안 넘기는 것이 목표"라며 "여야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의 방침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담뱃값 2000원 인상
서민 증세 논란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野 반발...법개정 진통 예고

정부가 담뱃세(기금 포함)를 지금보다 2000원 올려 현재 2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3·6면>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000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증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2500원 기준 594원)도 추가된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명분이 충분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물가 충격'과 세수 확보를 위한 '후회 증세' 논란 등으로 이후 국회의 관련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당은 인상 폭에 대해 추후 논의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담뱃값이 오른다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연소득의 10%를 담배 소비로 부담해야 한다"며 "세수 부족을 메우려면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기자 jkpark@연합뉴스

本社人事

- ▶ 程厚植 : 편집국부국장 직무대리 (정치담당)
- ▶ 林治浚 : 편집국부국장 직무대리 (사회·기획담당)
- ▶ 金日煥 : 편집국부국장 직무대리 (사회2부담당)

(9월 12일자)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최고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The New C-Class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삼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경부고속도로: C200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200 Avantgarde 1,991cc, 1,509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l (도시연비: 10.8km/l, 고속도로연비: 14.1km/l), 3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220 BlueTEC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220 BlueTEC Avantgarde with Powermatic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220 BlueTEC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l (도시연비: 15.1km/l, 고속도로연비: 21.3km/l), 1단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복합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